

교학상장(敎學相長)

중·고등학교 때에는 담임선생님이 계셨고 대학교 때에는 지도교수님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다. 그럼 '지금의 나의 스승은 누구이며, 무엇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까' 라고 가끔 자문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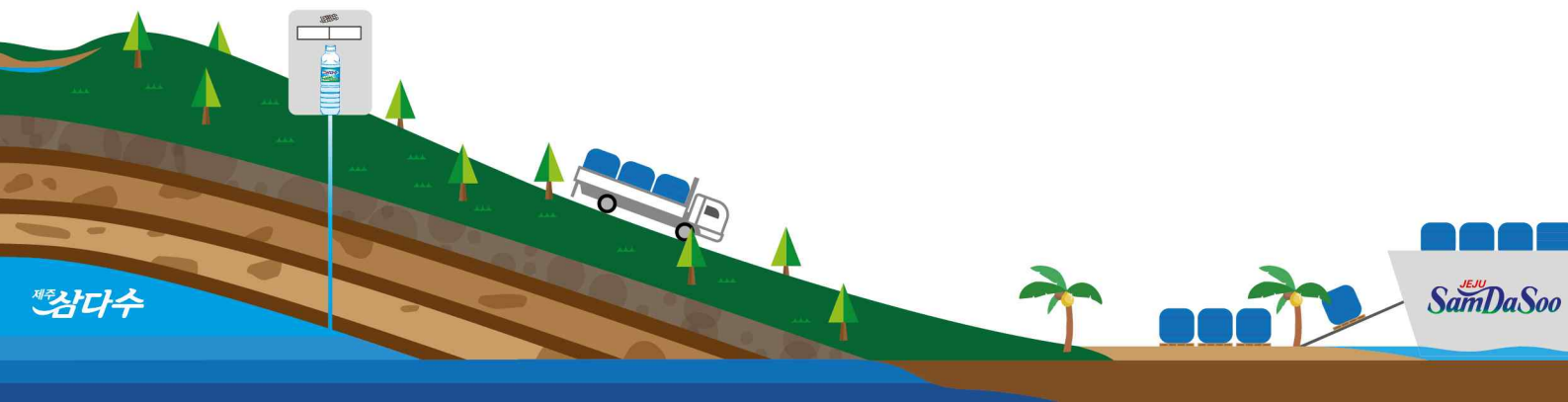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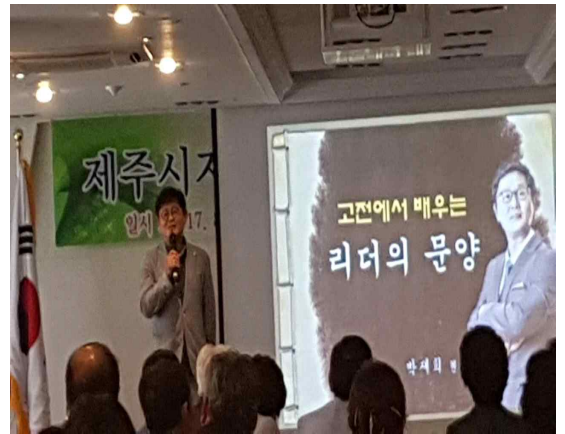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주치는 모든 사람과 정보가 나의 스승"이라고 우문현답처럼 이렇게 물음에 대한 답을 해본다.

각종 읽을거리와 들을거리, 볼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인 셈이다.

지난주에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주제로 제주에서 첫 특강을 하였다. 새롭게 맡게 된 회사업무를 위해 그동안 잠시 접어두었던 강의였기에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강단에 설수 있었다.

그런데 어제, 나에게 이런 고전을 가르쳐주신 박재희 훈장님이 제주농협에서 강의를 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비록 남의 행사지만 한걸음에 달려가 청강을 하였다.

공자, 노자, 손자의 사상인 즉 궁즉통, 허즉통, 변즉통 (窮卽通, 虛卽通, 變卽通)에 대해 다시 한 번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배운 것을 가르쳐보고 또 다시 배우고 또 가르치다 보면 그 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교학상장...

오늘 아침엔 오랜만에 스승과 제자로 마주앉아 조찬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그리운 정을 나누며 서로 준비한 선물도 주고받았다. 스승님은 최근 새로 출간한 책2권을 직접 사인해서 주셨고, 나는 지난주 삼다수 골프대회시 박인비선수가 직접 사인한 모자를 답례로 드렸다.



식사 중 최근 주변 이슈들에 대해 고전에 빗대어 대화를 나누었는데,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생수인 삼다수 사장임을 이미 아셨기에 오늘은 물을 테마로 한 겸손과 낮은 자세로의 '상선약수(上善若水)'가 주요 주제였다. 결국, 삼다수가 上善三多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둘이 공감하기도 했다. 아! 그리고 보니 오늘 아침의 만남은 국민훈장과 국민생수의 만남이 아닐까?



비록 스승님은 서울에 계시고 제자는 제주에 있지만
앞으로도 시공을 초월한 이런 만남이 자주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요즘에는 점점 교학상장이 피부로 느껴지지 때문이다.

[참고 #1] 상선약수(上善若水)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는 뜻으로 노자 사상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는 이 세상(世上)에서 으뜸가는 선의 표본으로 여기어 이르던 말.

[참고 #2] 교학상장 (敎學相長)

중국 5경의 하나인 예기(禮記)의 학기(學記) 편에 나오는 성어로
‘스승은 학생을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발전 한다’는 뜻.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맥을 같이 하는데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직접 가르쳐
보는 것이고 배워 봐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깨달을 수 있기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말.

